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 SA1175

한글 성명: 레티투티

나를 설레게 하는 베품
내 나이 스물 한 살일 때 청춘 속
에 가장 화려한 나이, 가장 빛나는 나
이, 자신의 꿈을 향해 많은 우여곡절을
겪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
져 드는 나이. 그 아부 왕다운 청춘 속
에서 되이 보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생
각했다. 그것은 의미 없이 존재할 뿐이다.
그래서 자신을 치열하게 다그치며 되물
을 수밖에 없었는 시절이었다. 꿈이 있을
까,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
라는 질문을 많이 스스로에게 던졌다.
대학교에 들어갈 전공을 선택했을 때
'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'
그 정답을 찾게 되었다. 바로 그것은
부모님의 어깍임은 응원과 한없는 사랑
이다.
나는 작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자라왔
다. 어렸을 적부터 늘 부모님의 말씀에
잘 듣는 아이. 주변 이웃들에게 찬양과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75

한글 성명: 네터투투

박수 갈 채를 받 았 던 ㅈ 개 감 할 만 한 아 이
 였 다, 그 러 나 고 등 학 교 졸 업 을 앞 두 고
~~한~~국 대 학 교 전 용 선택 이 난 갈 람 일 에 서
 이 을 때 나 는 처 응 으 로 부 모 님 께 서 시
 키 는 대 로 따 라 하 지 았 고 주 변 사 람 들
 의 시 선 에 불 구 하 고 내 마 음 속 에 깊 이
 숨 겨 진 꿈 환 향 해 막 무 가 내 조 내 길 을
 걸 어 가 기 로 마 음 먹 었 다, 내 가 한 국 어 전
 공 을 하 기 로 굳 게 결 심 했 다 고 부 모 님 께
 말 씀 을 드 렸 는 데 ~~잘~~ 슬 통 파 걱 정 이 맺
 혔 던 눈 빛 으 로 확 신 하 나 고 대 답 하 셧 다.
 부 모 님 의 생 각 에 는 명 어 가 전 세 계 적 으
 로 공 용 어 로 사 용 되 는 언 어 라 서 한 국 어
 를 공 부 한 다 면 질 조 가 어 뎡 게 하 나 고
 주 변 인 들 이 심 한 편 견 이 있 는 시 선 으 로
 어 뎡 게 ~~맞 서 야 지 나 에 게 물~~ 았 다. 맞 서 고
~~바~~틸 추 견 딜 수 있 나 고 나 에 게 배 품
 이 넘 친 물 음 을 던 셧 다. 내 주 변 에 서
 한 국 이 란 이 중 은 낯 설 고 ㅈ 심 지 어 들 은
 적 이 어 는 나 라 조 생 각 했 다. 그 리 고 한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75

한글 성명: 레티투티

국 은 열 국 이 예쁘고 흥 을 잘 주 는 가
 수 와 배 우 로 만 유 명 하 다 고 생 각 해 서 한
 국 어 전 용 을 하 고 있 다 고 말 한 다 면 내
 차 배 순 이 치 , 한 국 을 사 랑 한 게 아 나 라
 한 국 의 화 려 함 을 즐 아 하 고 한 국 아 이 돌
 에 대 한 열 창 적 인 사 랑 일 뿐 이 라 고 편
 견 이 심 한 틀 에 박 혀 있 다 , 그 내 서 부
 모 님 께 서 내 결 정 을 등 고 나 서 끝 이
 업 는 고 민 에 잠 기 셴 다 , 그 너 나 한 국 어 파
 란 하 나 의 꿈 을 메 고 매 일 매 일 밤 낮 없
 이 노력 했 다 . 한 국 어 파 에 들 어 갈 수
 있 자 는 목 표 로 만 향 해 주 변 의 시 선 과
 비 판 에 도 불 구 하 고 별 빛 같 은 아 름 다 운
 꿈 에 의 지 하 며 살 아 가 던 시절 이 었 지 . 어
 느 날 학 고 수 업 이 끝 나 고 집 에 들 어
 와 서 부 모 님 께 서 의 마 이야 기 를 우 연 히 들
 었 다 . 눈 을 이 왈 각 날 ? 정 도 로 감 동 을
 먹 었 던 이야 기 었 는 데 딱 한 말 씀 은 내
 평 생 가 슴 에 남 는 것 이 다 . " 이 인 생 은
 우 리 딸 의 인 생 이 나 까 요 . 우 리 는 대 신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75

한글 성명: 레티투투

살아갈 수 업고 책임질 수 업잖아.
우리는 어렸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
자기 원하는 것, 꿈꾸는 것을 선택할
수 업는 데 꿈은 꿈을 권리조차 배앗
는다면 고정관념과 편견에 얽매어는 사
라들이나 다름 업잖아. 그래서 우리는 단
지 걱정해 줄 수 업고 응원해 줄 수
업는 땀, 좋아하는 것, 자신을 설레게
하는 것들 따라하게 해 줘라. 만약 앞
으로 선택했다면 그 것을 ~~후회하~~ 후회한다
면 그 후회했던 순간들이 우리 딸을
성숙하게 해 주고 밝아주는 불빛처럼
반짝반짝 빛나게 해 줄 것입네다.' 라고
말하셨다. 나는 그때까지 부모님이 나를
사랑하지 않고 응원해 주지 않았을 줄
알아는 데 그 걱정은 나를 한 업이 베풀
는 마음이 다. 부모님의 따뜻한 말솜과
묵묵히 응원하는 것은 나를 설레게 했
던 일이다. 이 세상에서 자식을 아끼고
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한 명도 업다.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75

한글 성명: 레티투튀

“	사	랑	하	는		법	은		각	양	각	색	이	다	”	라	는		말
이		있	스	이		내		부	모	님	은		나	를		사	랑	하	고
가	르	쳐		주	시	는		법	에		감	사	하	게		느	꼈	다	.
그		베	품	은		내	가		다	치	지		압	도	족		보	호	해
주	고		무	분	별	하	게		응	원	해		주	는		것	이		아
나	라		나	를		설	레	게		하	는		것	들	을		해		봐
라	,	꿈	꾸	는		것	을		치	멸	하	게		달	려	가	라		라
는		응	원	과		민	음	이		가	득		찬		마	음	이	다	.
부	모	님	의		가	났	지	고		유	일	무	이	한		베	품	은	나
를		설	레	레		했	다	.		내		마	음	을		설	레	레	할
뿐	만		아	나		코	앞	에		막	칠		시	련	이	란		사	
막	에	서		시	원	한		물	결	바	다	가		되	고		매	섭	고
거	친		모	래	바	람		앞	에	서		나	를		지	탱	해	주	는
휴	식	처	가		될		것	이	다	.									